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

김영두 옮김

소나무 / 2만5천원



퇴계는 청년 고봉의 두려움 없는 열정을 받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급제를 달성하고 귀향하는 고봉에게 먼저 편지를 띄웠다. 그해 겨울 퇴계가 고봉에게 첫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 후로 두 사람의 편지 교환은 1570년 12월 퇴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13년 동안에 걸쳐 끝없는 애정과 상호 존중의 자세로 계속 되었다.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는 바로 두 사람의 이런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사소한 반성에서부터 당시의 지성계를 뒤흔든 폭발적인 논쟁에 이르기까지를 다루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소, 조선 전기 사상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옮긴이 김영두 씨는 이렇게 말한다

1558년 명종 13년 10월, 퇴계 이황은 지금의 국립대 총장 격인 성균관 대사성이었다. 그리고 고봉 기대승은 이제 막 과거에 급제한 청년이었다. 퇴계는 58세, 고봉은 32세에 불과했다. 무려 26살 차이다. 청년 고봉은 서울로 과거 보러 가는 길에, 당시의 대학자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퇴계를 찾아가, 평소 자신이 가진 철학적 소신들을 거침없이 질문하면서 논쟁을 시작했다. 고봉의 이런 파격적 행동은 오로지 열정과 패기만으로 세속적 편견을 뛰어넘은, 과감한 도전이었다. 더 놀라운 건 퇴계의 대응방식이다.

경륜·직위 초월한 ‘영혼의 교류’

다. “그들의 편지는 일상의 안부나 소식을 전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학문적 논쟁의 터전이고 자기 성숙의 매개체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편지는 요즘 관점으로 보면, 안부 편지일 뿐 아니라 학술 논문이기도 했으며, 자기와 세상을 되돌아 보는 성찰이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는 편지를

주류로 부상하고 있던 사림(士林)의 정치적 고뇌와 의식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학문적 진리를 추구하려는 마음과, 충성스런 신하로서의 정치적 참여에 헌신하려는 포부가 함께 교차하고 있는 조선조 중기 지식인들의 고뇌 어린 대화는 그 어떤 정치 이론서보다 더 실감나게 다가온다.

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단지 한두 차례의 논쟁으로 서로의 의견을 다투는 데 머무르지 않고, 수년 동안의 공부와 탐색을 통해 정밀한 철학적 개념들을 확정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로의 다른 의견을 억측이나 권위로 강변하지 않고, 언제나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서거끼리 열린 마음으로 사색하고 토론했다는 점에서, 길이 남을 철학논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지성사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논쟁과 우정의 기록인 이 서한집은 동아시아의 다른 어떤 유교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직위와 경륜의 장애, 지역간의 한계를 모두 초월한 위대한 정신과 영혼으로부터 전해진 메시지란 점에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26세 차이 퇴계·기대승 13년간 논쟁·토론

‘사단칠정논변’ 등 사상·학문·안부 등 담겨

통해 그들의 생활뿐 아니라, 사상의 전개, 가치관, 정치적 지향 같은 다양한 내용을 읽을 수 있다. 한 마디로 그들의 삶을 가장 종합적이고 다양한 각도도 들여다 볼 수 있는 최선의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에는 또한 당시 이미 몇 차례의 사화(仕禍)를 겪으면서도 점차 정치적

퇴계와 고봉의 편지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인간이 지닌 네 가지 선한 단서와 일곱가지 감정’에 대한 논쟁(四端七情論辯)’이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이질적인 논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논쟁했던 것은 인간의 심성과 선악에 대한 탐구였고, 이것은 바로 오늘날의 철학적 문제를

‘대한민국사’

한홍구 지음

한겨레신문사 / 1만1천원



근대사 비밀 파헤친 대중역사서

<각주와 이크의 책임기>(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에서 도서평론가 이권우는 책을 읽는 이유와 유형을 크게 둘로 나눈다. 각주의 책임기와 이크의 책임기가 그것. 전자는 독자의 감성이나 가치관을 옹호해주는 책임기를 일컫고, 후자는 독자가 새로운 사실에 눈 떠 무릎을 치며 감탄하는 책임기를 말한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역사에세이 <대한민국사>는 대부분의 독자에게 이크의 책임기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만큼 이 책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 역사의 비밀이 수두룩하다. 특히, 한국 근·현대사 관련 내용들은 우리의 눈과 귀를 번쩍 뜨이게 한다.

임시정부의 정통성 계승론부터 살펴보자.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이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헌법 전문에 명시돼 있지만, 이를 역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대사 전공 역사학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 한홍구 교수의 진단이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쑥스럽기 때문이다.” 인물의 계승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둘째 치고,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해온 정책과 임시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정책 사이에 거리가 너무 먼 까닭이다.

임시정부의 구성원은 독립운동 진영 가운데서 가장 보수적인 세력이었으나,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나 헌법은 매우 진취적이었다. 임시정부는 ‘건국강령’을 통해 토지국유화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천명했고, 헌법인 ‘임시헌장’에서는 파업의 자유를 보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전쟁 이후 이남에 출현한 어떤 진보정당의 정당정책보다 급진적인 것이었다.”

한홍구 교수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은 민족해방운동에 진력했던 다른 정파들의 역사적 의미를 부인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한다. 그렇지만 이런 부정적 측면과는 별개로 ‘대한민국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제대로 계승했다더라’ 하는 상념에 빠지기도 한다. “적어도 그런 정부라면 통일을 지향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존중하고, 어떤 특권세력에 의한 부와 권력의 독점을 용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주성을 갖는 정부이기 때문일 것이”기에

태극기의 탄생과 상징성에 대한 실증적인 추적은 독자의 무지를 일깨우기에 충분하다. 박영효가 일본에 사신으로 갈 때 태극기가 처음 만들어졌다는 사실

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태극기의 첫 도안자가 누구인지는 베일에 싸여 있었다. 한홍구 교수는 마건중과 김홍집 사이에 오고간 필담을 담은 <청국문답>을 근거로 태극기의 도안자로 청나라 사신으로 조선에 와 있었던 마건중을 지목한다. “1882년 4월 11일 마건중은 김홍집과의 회담에서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조선의 국기를 흰 바탕에 태극 그림을 사용하고 주위에는 8괘를 그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태진손간(兪震巽) 4괘를 들어내고 건곤감리(坤乾坎離) 4괘만을 남기게 된 사연은 더욱 놀랄만 하다. 일본에 사신으로 건너갈 때 박영효는 일본 국적의 메이지마루 호를 이용했다. 박영효는 이 배에 동승한 조선주재 영국 총영사 애스턴과 조선 국기에 관해 협의했는데, 애스턴은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녀 각국의 국기에 정통한 메이지마루 호의 선장 제임스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조언했다. 박영효는 마건중의 도안대로 8괘가 다 들어가면 복잡하고 따라 그리기 힘들다는 제임스의 충고를 받아들여 4괘를 들어냈던 것이다.

TV드라마의 영향으로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

태극기 첫 도안자·김두한의 실체 벗겨

고 있는 풍운아 김두한에 대한 한홍구 교수의 역사적 평가는 애증이 병존하는 듯 하다. 황당하기는 해도 미워하기는 힘든. 한홍구 교수는 먼저, 김두한을 항일영웅으로 간주하는 것은 웃음거리일 뿐이라고 일침을 놓는다. “김두한은 항일영웅의 아들이지 그 자신이 항일영웅은 아니다.”

한교수는 꼼꼼한 사료추적을 바탕으로 김두한이 발설한 허풍의 실체를 밝힌다. 김두한은 1968년 간행된 <명인옥중기>에 실린 회고록에서 자신이 1945년 12월 7일 좌익 계열의 국군준비대를 습격해 1,300여 명을 일시에 참살했다고 자랑스레 떠벌렸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홍구 교수는 “이 시기 김두한은 아편을 밀매하다가 미군정의 단속에 걸려 서대문형무소에서 3개월 가량 옥살이를 한 뒤 출옥하여, 우익이 아니라 좌익의 쪽에 가담하고 있었다”고 역사적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다.

정확한 문장, 사료의 섭렵, 투철한 역사적식이 어우러진 이 책은 대중적 역사서의 신기원을 개척하고 있다. ■최성일/출판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사>는 올바른 관점으로 오늘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부딪치는 사건이나 제도, 생각 등의 역사적 뿌리를 찾아보고자 한 책이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썼다.

몽골 침입... 국난극복의 기록

佛畫·팔만대장경 간행 인쇄소 소개

고려가 없었으면 아마 오늘의 우리도 없었을 것이다. 여러 갈래로 나누어 발전해 오던 우리 조상의 역사와 문화를 하나로 모아 민족의 토대를 다진 고려인, 거대한 외세에 맞서 국토와 주권을 지켜낸 고려인의 파란만장했던 삶. 그 전모를 두 권에 담은 <한국생활사박물관-고려편>이 완간됐다.

몽골군의 침입 앞에서도 고려인은 의연함을 잃지 않고 맞서 싸우며, 세계 최고의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완성했다. 몽골 제국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간섭의 손길을 100년 동안이나 뻗어 왔지만, 고려인은 나라의 주권과 문화적 자존심을 지키며 그들 자신의 길을 갔다. 민족의 자랑인 세계적 문화유산들을 창조하고 온갖 시련 속에서 그것을 지켜내어 우리에게 전해준 자랑스런 고려인. 그들을 <고려생활관 2>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국생활사박물관 시리즈는 세계철학관사가 직접 기획하고, 역사학·고고학·민속

학·인류학 등 관련학계 전문가들과 수많은 미술진이 참여하여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우리 민족 생활사를 총체적으로 재현할 예정이다. 그 여덟 번째 권인 이 책은 ‘생활사박물관’이라는 이름이 말해 주는 것처럼 그저 역사적 사실을 나열해 놓은 여느 역사책과는 다르다. 보통사람까지 망라한 고려인의 생활상을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입체적·시각적 구성을 통해 총체적으로 되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생활관 1>이 호수와 같은 포용력으로 여러 갈래의 생활 문화를 하나로 녹여낸 고려 다원 사회를 탐방했다면, 이 책 <고려생활관 2>는 몽골의 침입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역사의 명맥을 지켜낸 위대한 나라 고려를 찾아간다.

불교를 이야기 하지 않고 고려를 이야기 할 수 없는데, 이 책에는 당시 고려 불교의 다양한 모습도 담겨 있다. 이은자 기자

‘고려생활관 2’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지음
사계절 / 1만6천8백원



◇팔만대장경은 고려의 혼이다. 그림은 대장경을 옮기고 있는 스님들 모습.

간(肝)의 지방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응답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온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훈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 마을 토종 (민속농원)

승복, 범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예동승복 직원일동 -

주복복 (재질: 면)



잔누비



* 장삼, 가사, 방망 및 기타리본은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우교육터미널 ↔ 동부류점 대우광역시 동구 신천4동 399-1 TEL : (053) 741-8131 FAX : (053) 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참선교육 59기 안내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할 것인가! 불법 만나기 어렵고 참선법 만나기 어려운 법입니다. 본회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참선교육 59기를 개최하오니 인연 있는 분은 교육에 동참 바랍니다.

일 자	교육 내용
3월 18일(화)	참선의 자세
3월 25일(화)	참선의 종류
3월 25일(화)	선종발달사
4월 1일(화)	화두의 중요성
4월 8일(화)	화두참구법

- 시간 : 오전 10시, 오후 7시
- 동참비 : 3만원 (참선교육 간이교재, 선종발달사 도표, 참선교육테이프 6개 포함)

대한불교조계종 修禪會
서울·종로구 수송동 46-19 / Tel. 02)732-5960